

“지역 한계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갖춘 강소기업 육성”

지난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격변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히 대응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화 모델로 꼽힌다. 기술지주회사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현물 출자 받아 창업이나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지난 2008년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대학, 국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가 늘고 있다.

이중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나 대학의 산학협력단 단독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대학의 연구 성과 실용화에 따른 수익을 대학 내 연구와 기술개발에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술 사업화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선도해 오며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교수와 석박사 학생창업기업 대부분은 기술 기반 벤처기업이며 벤처기업 특성상 양질의 20~30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하며 창업 투자까지 직접 관여하고 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지역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중요해지는 배경이다.

지역에서도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대표 김요수)는 10여년간 지역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을 키우자 김요수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

대학연구·기술개발 재투자...산학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 10여년간 80개 스타트업 지원...코스닥 상장 성과 거둬 지역 공공기술 사업화 협력 모델...전국 혁신 창업 거점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는 지난 2016년 광주 지역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광주 지역 내 7개 대학과 광주 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이다.

법인 설립 후 화장품, 자동차, 에너지 관련 4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소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등 ‘창업도시 광주’의 콘텐츠를 채워가고 있다.

법인 설립 후 화장품, 자동차, 에너지 관련 4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소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등 ‘창업도시 광주’의 콘텐츠를 채워가고 있다.

투자 유지를 통한 자회사 설립 및 자회사 가치 성장을 통한 수익 창출, 고용 창출을 통한 성과 조기 창출, 성과 중심 구조 조직으로의 조기 자립화, 참여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네트워킹, 체계적 EXIT 전략 수립 등과 관련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의 자본을 묶어 자회사를 설립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신기술기반 창업기업 설립 및 성장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사업화 모델(BM) 수립부터 마케팅, 투자 유치(IR)에 이르기까지 기술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미래차 모빌리티, 에너지 등 광주지역의 고성장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업종 간 융합을 주도하며 미래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으로 광주지역 기술지주는 설립 후 지난 10여년 간 지역 대학과 연계해 80개 기업에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며 전국 혁신 창업의 거점이 됐다.

올해는 정부가 창업 인재에 직접 투자하는 창업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도 기술경영혁신(컴퍼니빌더 지원형)’ 사업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공공기술 사업화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



김요수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는 “대학이 가진 혁신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의 구매 수요로 연결되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는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팁스는 민간이 주도해 유망 기술창업

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추천한 기업에 최대 7억원 규모의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가 주관한 ‘대학창업펀드’(25억 원 규모)에 선정돼 조합을 결성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기술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135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지역 창업 기업의 지속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투자 기업인 에스오에스랩이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도 거뒀다.

향후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는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산학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 공공기술 사업화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관계자는 “이제 단순한 투자 기관을 넘어,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메우는 ‘컴퍼니빌더’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학이 가진 혁신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의 구매 수요와 연결되도록 ‘수요 역설계’ 방식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투자할 기업을 발굴하는 조직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만드는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요수 기자 y1404@gwangnam.co.kr



지난 2023년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와 교육부와 함께 진행된 ‘지산학 협력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대표 김요수)는 지난해 전국 8개 연합기술지주사와 함께 협의회를 결성해 전국적인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는 지난 2016년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으로 설립해 10여년간 지역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3’ 첫 공개 공기역학 효율·실내 공간성

현대자동차가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3’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3는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라인업의 최신 모델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진보된 전동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소형 해치백 스타일의 유럽 시장 전용 모델이다.

아이오닉 3는 공기역학 효율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동시에 충족하는 ‘에어로 헤치’ 디자인,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럽 주행환경에 최적화된 성능, 최고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외관은 전면부에서 루프라인, 리어 스포일러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새로운 에어로 헤치 실루엣을 적용해 0.263의 뛰어난 공기저항계수를 달성했다. 정승기 기자

“편의·안전사양 확대”...기아 ‘2027 K8’ 출시

고객 선호 사양 중심 상품성 강화...연식변경 모델 판매

기아가 브랜드 대표 준대형 세단 K8 연식변경 모델 ‘The 2027 K8’ 판매를 시작했다.

2027 K8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2027 K8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주행 중 시선 분산을 줄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화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노블레스 트림과 베스트 셀렉션 트림에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ADAS) 사양을 확대 적용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기아는 노블레스 트림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 승객 알람 등을 기본 적용하고, 베스트 셀렉션 트림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



기아 브랜드 대표 준대형 세단 K8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7 K8’ 판매를 시작했다.

전 하차 보조 등을 기본화했다.

기아는 2027 K8의 출시를 기념해 차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오너 구매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먼저 5월 31일까지 2027 K8을 계약하고 6월 내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기아 멤버십 포인트 30만원을 추가 지급해 고부가 가치 속에서 정비와 주유 등 차량 운용에 드는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개별서비스에 인화 혜택이 6월 말 중

료됨에 따라 6월 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개별서비스 인상분을 감안해 7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 2.9% 금리를 제공해 월 납입 부담을 낮추고, 개인고객이 할부 종료 후 기아 신차를 재구매할 경우 중고차 잔존가치를 최대 70%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2027 K8은 기아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세단으로서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모델”이라며 “K8 고유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선호도가 높은 안전·편의 사양을 바탕으로 준대형 세단 시장 고객에게 한층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8은 2024년 8월 상품성 개선을 거치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를 탑재해 노면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체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은 안락한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 참가

오픈랩 형태 전시관서 최신 제품 120점 등 공개

삼성전자가 20일(현지시간)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자인 축제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에 참가해 삼성전자의 디자인 철학을 선보인다.

전시 공간은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픈랩 형태로 구성했다. 총 12개의 물품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용적인 미래 디자인 콘셉트와 최신 출시 제품 등 총 120여점의 디자인 자산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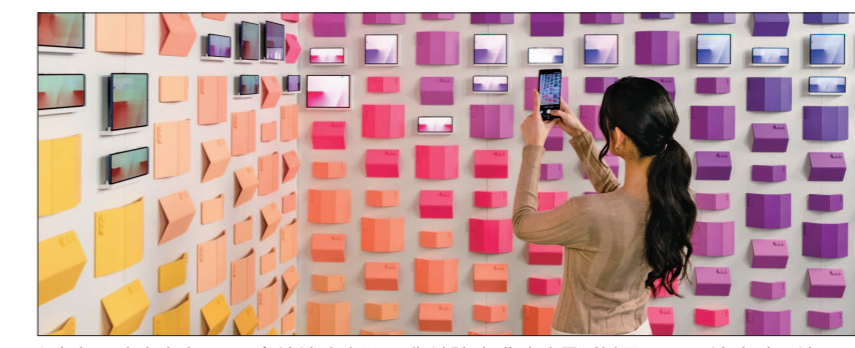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0여년간 강조

온 사람 중심의 디자인 철학에 AI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을 투영한 새로운 디자인 공식 ‘AI X (E+H)’를 소개했다.

이는 AI의 진정한 가치가 ‘공감과 상상력’, ‘사람의 의도’가 결합될 때 증폭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인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의 의도와 공감, 상상력이 결합된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자 했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 삼성전자 부스에 설치된 갤럭시 폴더폰으로 구성된 아트월.